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다음주 미사 독서: 조은영 베다, 이진숙 수산나
 금주 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다음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웰프레드
 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지원 카린
 다음주 미사해설: 김지원 카린,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친교실 정리: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1 차헌금: \$242
 교 무 금 : \$250
 매일미사: \$10
 합 계: \$502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3 월 23 일)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 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3 월 17, 31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 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3 월 16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예수님 시절, 당시 사두가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들과 사회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성전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두가이들에게 성전 사업은 그들의 중요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얻은 수입은 모두 대제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동은 자신들의 돈을 끊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엣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더없이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병들고 썩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 율법의 낡은 것에 고착되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성전은 상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것이 썩으면 그 악취는 더 고약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때문에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은 수난하시고 돌아가시어 부활하시게 될 당신 몸이었습니다.우리 신앙인들 각자가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령께서 거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산다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우리 신앙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일구어 내는 아름다운 영적 성전일 것입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오로

(608) 628-7977

[사순 제 3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 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 년 3 월 10 일

<제 1 독서> 탈출기 20,1-17<또는 20,1-3.7-8.12-17>

<제 2 독서> 코린토 1 서 1,22-25

회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를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복 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요한 복음 2,13-25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쳐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오늘의 성가] 시작: 122 봉헌: 210 성체: 184 파견: 491



고해성사, 죄로 멀어진 주님과 화해하는 길

평화신문, 2011년 11월 13일, 제공=서울대학교 사목국

고해성사의 개념

고해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이들이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고백해 하느님께 용서받고, 하느님과 이웃,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는 성사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을지라도 세속과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느님 은총을 상실하고 하느님과 친교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 이제 인간이 죄로써 잃어버린 하느님 은총의 지위와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를 회복시켜 줄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다. 죄를 범한 인간은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서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회개'의 삶,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느님 용서와 자비, 사랑과 은총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인 것이다.

고해성사의 기원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 삶에서 비롯됐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 죄를 용서하셨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셨다.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위임됐고, 그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맡겨졌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과 화해하셨고, '화해의 봉사직'은 하느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절'인 사도들에게 위임됐다. 사도들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협력자인 신부들은 죄를 사해주는 사죄의 권한, 즉 사죄권(赦罪權)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이어 받은 합당한 대리자로서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죄를 사해준다.

고해성사의 효력과 중요성

하느님께서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로 인간과 화해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이어가는 교회의 고해성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당신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스런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한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느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격려하고 당부하심으로 참 삶의 길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원의와 사랑을 드러내셨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웃과 친지, 더 나아가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평화롭게 한 세상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고해성사는 바로 이런 인간에게 하느님과 이웃,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준다. 고해성사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성사이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성사다. 따라서 성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기피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참다운 회개의 마음과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원의를 갖고 솔직히 고백하고 보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고해성사의 요소

고해성사는 성찰·통회·정개·고백·보속 다섯 가지 요소로 이뤄진다. 첫째,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를 돌아보고 알아내는 성찰을 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범한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통회를 해야 한다. 셋째, 잘못을 고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정개를 해야 한다. 넷째, 사제에게 그 잘못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 다섯째, 사제가 죄의 용서를 위해 정해진 보속을 해야 한다. 죄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참된 회심과 참회야말로 하느님과 교회, 이웃과의 화해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 행위다. 통회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완전한 통회와 하느님께서 내리실 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통회로 구분하기도 한다. 성찰하고 통회하며 정개한 죄인은 고백함으로써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에 화해를 청한다. 고해자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고백한 죄를 다시 고백할 필요는 없다. 고해자는 고백 후 받은 보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고해자는 보속행위를 통해 자기 죄를 보속하고 고해성사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속 행위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죄의 용서는 온전히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해자는 다만 보속 행위로 하느님 사랑과 자비에 응답할 뿐이다.

✦ 공지사항

- 지난 회계년도 (2011년 3월~2012년 2월) 정산을 하였습니다. 올해 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회계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 공동체 모임 안내- 성서모임(각주 금요일), 성모회 기도모임(매주 금요일), 교리 모임(각주 토요일), 기타 모임(각주 금요일), 테니스 모임(매주 일요일)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공동체 모임 알림판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목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새로 오신 분들은 페이스북 성당 그룹에 가입해 주세요. 주보 1면에 페이스북 그룹 주소가 있습니다. 또는 "매디슨 한인천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매디슨 공동체 대표 메일 계정(kccmwi@gmail.com)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대표 연락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Spirit) 과 혼 (Soul)

문종원 베드로 신부 (구로2동 성당 주임)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 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 4,24)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영적”으로 되는지, 진실로 인간 영혼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인간 영혼을 ‘수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성’으로 상상했고, 시인 제럴드 맨리 홉킨스는 ‘불후의 다이아몬드’로 설명했으며, 십자가의 성 요한은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영혼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 아니지만, 영혼의 감추어진 위대함을 말합니다.

삶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적, 감정적, 상호 관 계적, 영적) 성장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한 방향은 영을 향하고,다른 방향은 혼을 향하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 자신의 생명력 있는 야생의, 신비로운 핵심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독특한 본질, 인격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Self)의 층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입니다. ‘영’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스며들고 생명력을 불어넣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광대하고 영원한 신비를 의미합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사물의 내면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열망을 가지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간 영혼의 갈망은 인간 삶의 핵심이 되는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내면의 삶 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창조적 영역에 온전히 관 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표면적인 삶의 평범한 세상을 뛰어넘어 궁극적인 것과 경험의 핵심적인 실재에 우리의 인식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영역은 빛을 향해 위쪽으로 향합 니다. 이것은 내면의 고요, 평화, 진정한 본성의 온전함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현재의 순간에 현존하는 지복의 경험과 모든 피조물과의 일치를 도모하게 합니다. 영성의 또 다른 영역은 자기(Self)의 어두운 중심을 향해 아래로 그리고 본성의 비옥한 신비 안으로 향하는 것입 니다. ‘영성’은 이성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하는 인간의 소명 또는 ‘불림을 받은’ 양상을 뜻하며, 영(spirit)과 혼(soul)은 모든 것에 대한 상호 관련성 즉, 관계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삶 전반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시 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르심을 발견하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은 인간 발달 단계와 여러시기를 거치면서 요청되는 정의, 사랑, 그리고 치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우리가 접하게 되는 삶의 상황으로부터 옵니다. 프레드릭 부에크너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장소는 당신의 총만한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증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혼(soul)의 가장 깊은 내면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영 (spirit)의 감흥을 받아 사회적으로 투신하는 삶을 말합니다.